

7/21/19

설교 제목: 변화산 사건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9 장 1-13 절

- (막 9: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절관주** 행 2:2
- (막 9:2)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 (막 9:3)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절관주** 왕하 18:17, 말 3:2
- (막 9:4)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 (막 9:5)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종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 (막 9:6)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 (막 9:7)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 (막 9:8)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절관주** 눅 9:36
- (막 9: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절관주** 마 17:9
- (막 9:10)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 (막 9:11)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 (막 9:12)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막 9: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도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절관주 마 14:3

본문은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등 공관 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당신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막 9: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틀린셈이지요.

왜냐하면 그들 중 예수님의 재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변화산 사건을 가르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성취 구조로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변화산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자가 된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 삼 일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한지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어느 산인지 산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헬몬 산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직전까지 헬몬 산 아래 가이사라 빌립보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헬몬산으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기도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눅 9:28)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눅 9:29)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가는 옛새 째, 누가는 팔 일쯤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이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9:2)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막 9:3)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기도 중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으신 옷은 빛같이 희어졌습니다.

신적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1 절에서 예언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세 제자들에게 당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당신이 가야 하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막 9:4)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막 9:5)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종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막 9:6)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브라함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아 다니엘 등등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자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시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과 선지자 시대입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전수받은 선지자이고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메시아이십니다.

더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구속 역사를 완성할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시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모두 많은 고난을 겪은 후 영광을 본 종들이었습시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서로 다른 시기에 살았으나 모두 영광 중에 동시에 나타났습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후 영광 받으실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였다고 했는데 무엇에 대해 말하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관한 것이었습시다.

(눅 9:30)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눅 9:31)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눅 9:32)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말할 수없는 고난을 받으셨습시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찢리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채찍에 맞으셨으며 마침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시다.

예수님의 이같은 고난을 통해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당시로부터 3 천 5 백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8 백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자 제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황설수설합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다른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그런 말을 한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의 잠재되어 있던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튀어 나온 것입니다.

산 아래 내려 가면 다른 제자들, 병든 사람, 귀신들린 사람 등등 골치 아픈 일들이 산적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세상의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길 기다리며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점입가경 예수님은 고난 받고 죽으신다고 합니다.

그럼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저것 생각하니 산 아래 내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자신들은 여기 아름다운 헬몬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한 것입니다.

죄와 질병과 사단의 권세 아래 허덕이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막 9:7)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막 1:9)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막 1:10)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막 1:11)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증거하신 후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무슨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인류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혼비백산 합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 복음에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 17:6)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마 17:7)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마 17:8)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후에야 비로소 눈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 간데 없어지고 예수님과 자신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막 9:8)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던

(막 9: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셨다가 삼 일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서로 거기에 대해 묻습니다.

(막 9:10)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제자들은 이때까지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음 속에 의문을 묻습니다.

(막 9:11)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막 9:12)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막 9: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말라기 4 장 5 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라고 기록된대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려면 왜 메시아 앞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놓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엘리야는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 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우했다고 대답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했으며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앞에 온 엘리야가 메시아의 길을 온전히 예비해 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은 듣기를 거부하고 은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쉽게 신앙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사이비나 이단들에게 쉽게 현혹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없이 편안히 사는 것이 행복한 줄 알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롬 5:3)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롬 5: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명심하셔서 꼭 천국에서 만나길 기원합니다.